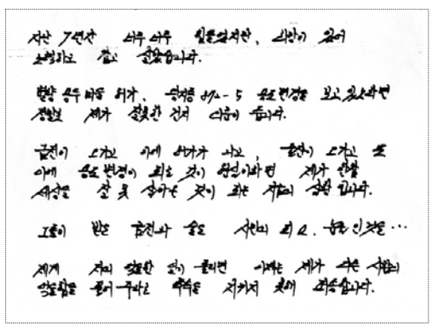
순천 '분신 사망' 민원인의 피맺힌 유서

"술 넘어가던가요? 그거 시민의 피눈물입니다 공무원 11번 찾아가…시장님 뵙기 보다 어려워 민원인 버르장머리 고칠 생각 말고 도와줘야죠"

공무원·시의원·가족에 편지 형식 A4 12장 남겨



자신 소유의 부지에 신청했던 주유소 등을 건립허가가 나오지 않자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분신 자살한 서모(41·순천시 생목동·광주일보 12월 23일자 6면)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에는 서씨가 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당한 모욕적인 언사와 형식적인 업무 처리태도,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유서에 따르면 서씨는 순천시 건축허가 담당 등 공무원과 시의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서(12장)에서 "공무원이 맘(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 없고, 될 것도 안 된다는 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라고 밝혔다. 서씨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분위기가 고스란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고인은 이어 "제 부친께서 지난 4월 담당 공무원을 뵈러 11번 찾아갔으나 단 한 번도 못 뵈었습니다. 시장님 뵙기 보다 더 어렵더군요. 왕지동 ○○○번지 용도변경 건 잘 아시죠. 담당 직원이 처음엔 불허했다가 나중에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변경해 주셨죠. 술이 넘어 가시던가요. 그거 술이 아니라 시민의 피눈물 입니다"라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 〈사진〉

고인은 특히 "(모 과장이) 저것들은 절대 해(허가) 줄 수 없다고 했다. 저것들은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한다. 시민은 저것들이 아닙니다. 시민은 버르장머리를 고칠 저것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안아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지적했다.

고인은 또 "○○○ 계장님. 소송할 비용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쓰지 그랬냐구요. 법상 가능하다고 ○○○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쓸 돈 없습니다. 그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하겠습니다. 돈, 돈 하지 마시고 술, 술 하지 마십시요"라고 민원업무 처리태도를 비꼬았다.

고인은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소통이 공무원들도 잘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의 우기기를 시민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실현하고 있는데, 순천은 여전히 불통입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도 조사권을 발동, 고인과 관련한 인·허가 행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10분께 순천시 장천동 순청시청 정문에서 자신 소유 부지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신청했던 수차례의 허가가 반려되자 분신자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 둔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 한 제과점에서 케이크 주문이 밀려들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는 '돈' 학부모는 '봉'

34억 빼돌린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53명 입건

지원금 횡령에 교재·앨범 등 구매금액 부풀려 착복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른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것부터 교재값, 학원생 가방, 활동복 구입, 앨범 제작비, 특별 활동비 등을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잇속을 챙겨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71개소 적발, 착복 금액만 34억=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학부모들에게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로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을 적발해 5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중 횡령액이 1억이 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71곳 중 횡령액이 1000만원 미만인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또 62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등을 납품하면서 10여 곳에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만들어줘 횡령 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업자(57)도 입건했다. '甲'인 어린이집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乙'의 입장임에도, 많은 통장을 발행해줘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을 도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원장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혐의로 전남 A군청 공무원(49)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부모는 '봉', 어린이는 '돈'=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비리 종합세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것은 기본. 특히 교재·교구비, 원생 가방, 활동복 구입, 앨범 제작비,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 받아낸 뒤 수익으로 챙기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했다. 이들에게 학부모들은 '봉'이었고 어린이들은 '돈'으로 보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구업체에 거래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특별활동비 등으로 물품을 산 것처럼 입출금해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시·구청, 개인 종합병원, 사립대 등 기관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도 다수 적발됐다.

전남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107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 교재구입 대금, 강사비 등을 부풀려 1억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동구청 구립어린이집 중 한 곳도 이런 방식으로 2400만원을 착복했고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항소심 4년 구형

내달 27일 선고공판

검찰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에 폭력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로 눈물 흘릴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며 "서민이 바라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폭력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최루탄으로 동료 의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

원격진료·영리병원 반대 … 다음달 11일 출정식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숍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투쟁의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11일 출정식을 열어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정식에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 고질적인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의 투쟁목표를 명확히 세울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 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으로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투쟁을 진행해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올린 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담보로 맡겨놓은 차 "쓰지 않겠다" 해놓고 … 7000㎞ 뛰고 흠집 내 격분

쌍나팔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승용차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 운행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천모(33)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모(60)씨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자신의 3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말없이 가져갔다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

○…천씨는 경찰에서 "지난 6월 이씨에게 12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놓았던 차량에 흠집이 나 있고 '타고 다니지 않는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7000㎞ 주행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났다"며 변명.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4년 2월 17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100명) 오전 9:00~ 1:20
야간반(100명)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10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보육교사자격취득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 (1년에 1,705,000원 : 2013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EL 062)605-1112, 1023 FAX 062)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